

■ 호남 광역경제권 해결 실마리 찾나

정부 선도산업 재조정 요청 '청신호'

수정 계획서 제출 요구...지정부 차관 24일 현지서 의견 수렴

광주시와 전남도·전북도 등 호남지역 3개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호남권의 재조정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3개 시·도도 나름대로 합의안을 도출중에 있어 교착상태에 빠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월 내에 호남권 3개 시·도가 선도산업을 제출해 줄 것을 강력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이 오는 24일 오전 광주를 방문, 박광태 시장과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의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북지사와 잇따라 면담을 갖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12월까지 3개 시·도에 대한 정부 관계자 방문 등을 통해 선도산업

추진을 실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시·도도 정부가 당초 제시한 호남권 선도산업인 '신재생에너지'(그린에너지, 허브구축, 풍력·해양에너지)와 '광산업'(광소재, LED산업, 광기술융합사업) 등 2개 분야를 지역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3개 시·도는 또 정부가 제시한 '광산업'의 범위가 광(光) 분야에 국한돼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명칭을 '광산업'에서 '친환경(첨단)부품소재산업'으로 확장·변경하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총 국

비 1천25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중 광소재 분야와 LED분야의 확장을 위해 광주시 270억원을 비롯해 전남 95억원, 전북 180억원 등 총 사업비 545억원의 지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분야에 3개 시·도 각각 160억원씩 480억원의 예산지원도 촉구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보아가며 3개 시·도가 선도를 계획서 제출시기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국제유가 50달러 붕괴 3년반만에 최저로 추락

국제유가가 20일(현지시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예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져 3년반만에 최저수준으로까지 내려앉았다.

유가가 50달러를 밑돈 것은 미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의 경우 22개월만에 처음이고,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는 3년반만에 처음이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WTI는 전날보다 4달러(7.5%) 떨어진 배럴당 49.62달러에 거래를 마쳐 작년 1월18일 이후 처음 50달러를 밑돌았다. WTI는 장중에는 배럴당 48.64달러까지 거래돼 2005년 5월2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WTI는 지난 7월 배럴당 147.27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개월여만에 거의 100달러나 떨어지며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거래된 내년 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3.86달러(7.5%) 내린 배럴당 47.86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장중에는 47.82달러에까지 거래되며 2005년 5월2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협뉴스

광주·전남 식량작물 재배 20% '뚝'

광주·전남 지역의 대다수 작물은 재배 면적이 줄었지만 일부 채소와 과실류 재배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의 '작물 재배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 지역의 쌀, 보리, 콩 등 식량작물 재배 면적은 24만9천ha로 1998년 31만1천ha에 비해 19.9% 감소했다. 이 가운데 보리와 콩은 정부의 감산정책과 다른 작물로의 재배 전환 등으로 44.8%와 54.0%씩 감소했으며 쌀 역시 소비량 감소 등으로 9.1% 감소했다.

채소류도 5만6천ha로 10년 전보다 1만6천ha(21.9%) 가량 재배 면적이 줄었다.

이 가운데 고추와 마늘 재배 면적은 외국산 증가 등으로 15.4%와 41.6%씩 감소했다. 다만 양파는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12.7%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럭비공' 장세...금융시장 불안 지속

주가 1000선 회복...원·엔 환율 1582.19원 사상 최고

증시의 코스피지수가 900선 가까이 밀려다가 1,000선을 뚫고 올라가다가 하반, 원·달러 환율은 장중 진폭이 50원에 이르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00원 오른 1,49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3.00원 오른 1,50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1,491.00원으로 밀린 뒤 다시 1,525.00원으로 급등하기도 했다. 원·엔 환율은 100엔당 장중 1천609원을 기록한 것을 비롯 전날보다 100엔당 10.21원 상승한 1582.19원으로 장을 마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시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5.04포인트(5.80%) 오른 1,003.73을 기록하며 9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지수는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로 18.95포인트(2.00%) 내린 929.74로 출발해 한 때 914선까지 밀려 900선 부근 직전에 이르렀으나 오후 들어 상승 반전에 1,00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인 9일만에 '사자'에 나서 지수상승을 이끌었다.

코스닥지수 역시 5거래일 만에 올랐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하락세로 출발해 한 때 263선까지 밀렸지만 상승으로 전환해 전날보다 17.06포인트(6.25%) 급등한 290.12로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뉴욕증시의 급락과 경기침체

후려 등으로 조 초반 하락했으나 한·중·일간 통화스와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미국 선물시장의 강세 등으로 외국인이 국내시장에서 순매수세로 전환한 것도 증시의 분위기를 바꿨다.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도쿄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보다 20.75포인트(2.70%) 상승한 7,910.79에 마감했다. 대만증시의 가권지수는 전날보다 81.17포인트(1.98%) 오른 4,171.10으로 장을 마쳤다. 홍콩·중국의 증시는 상승했으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태백산맥 박물관' 개관

'태백산맥 박물관 개관식이 21일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현지에서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와 문인, 보성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관식 후 조정래씨가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에 태백산맥 초판을 소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연협뉴스

한, 중부세 과표기준 '6억원' 유지 가닥

한나라당은 21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다만 중부세 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준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에 결정을 일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협의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부세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을 통해 "중부세와 관련한 발언은 오늘 의총을 통해 중지부를 짚었다"며 "앞으로 당 지도부는 현

연협뉴스

시 설

사채 '수렁'에 빠지는 서민경제 대책 없나

금융권이 돈을 풀면서 고리의 사채에 의존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30~49%에 달하는 고리의 사채를 빌려쓰며 금융 경색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쟁은 최근 순천에서 영세기업과 서민들에게 사채를 빌려주며 연 850%의 고리를 받아 청진 21명을 적발했다.

사채시장의 '수렁'은 매우 깊다. 광주시에 등록된 415개 대부업체의 10월 말 현재 대출총액은 1천900억원에 달한다. 지난 3월 992억원의 2배 수준이다. 사채를 빌려쓴 사람도 7만8천500여명도 2배 이상 증가했다. 무등록업체나 개인의 대출까지 포함하면 사채 규모와 이용자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살인적 금리와 불법 추심행위가 성행하고 무등록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사채시장의 '수렁'은 매우 깊다. 광주시에 등록된 415개 대부업체의 10월 말 현재 대출총액은 1천900억원에 달한다. 지난 3월 992억원의 2배 수준이다. 사채를 빌려쓴 사람도 7만8천500여명도 2배 이상 증가했다. 무등록업체나 개인의 대출까지 포함하면 사채 규모와 이용자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서민금융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깊은 불황에 자금난까지 겹쳐 서민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의 내년 경제전망이 암울한 현실에서 서민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민이 몰락하면 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버림 끝에 몰린 서민경제의 안정 없이는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

공무원에 정치자금 '반 강제' 할당했다니

광주시내 일부 구청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을 반강제적으로 모금했다고 한다.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자발적 기부'를 통한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이라는 정치자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조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구청이 직접 직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한 것은 잘못됐다. 구청장이 선관위의 논치를

공무원에 정치자금 '반 강제' 할당했다니

공무원에 정치자금 '반 강제' 할당했다니

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할당은 반(反) 강제적이나 다름없다.

한 구청은 부서별로 일정액을 할당했고, 모금액이 목표액에 못 미치면 추가로 걷기도 했다고 한다. 일일이 모금하는 것이 귀찮아 아예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려다가 내부 반발을 우려해 취소한 구청도 있다. 어느 누가 봐도 자발적 기탁을 흉내 낸 강제모금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자금 기탁은 역수가 많은 적든 자발적이어야 한다. 강제적으로 모금해선 오히려 정치 불신만 키우게 된다. 구청장이나 선관위가 이런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자발적 기탁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과 신뢰성 있는 정치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내년 정부예산 재원감소분 반영 노력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 3차회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21일 천안시청에서 시·도 대표회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공동회장단은 최근 위헌 판결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분 부동산 조부세액이 1조5천억원 감소해 230개 시·군·구당 평균 60억원 이상의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의 사업속도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돼 내년도 정부예산(수정예산)에 재원감소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교육, SOC 확충 등

또한 공동회장단은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비는 연평균 20.5%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분권 교부세는 8.6% 증가에 그치고 있어 결과적으로 순 지방비 부담이 매년 20% 이상 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역기업 교차구매 200억대 농산물 구매

전남도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전남도가 지역기업간 상호 교차구매로 227억원 상당의 지역농산물 구매약정을 체결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전남도는 21일 도청 서재팔실에서 도내 금융권, 경제단체, 기업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제대책추진협의회를 열어 지역기업 지원대책, 참여기관들의 건의 사항 등을 수렴했다.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물경기 침체와 시중은행의 대출 기피로 갈수록 자금압박을 받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을 확정, 연말까지 중소기업 운영자금 50억원을 은행을 통해

또 내년에는 중소기업 융자재원을 올해보다 400억원 이상 추가 확보해 연초에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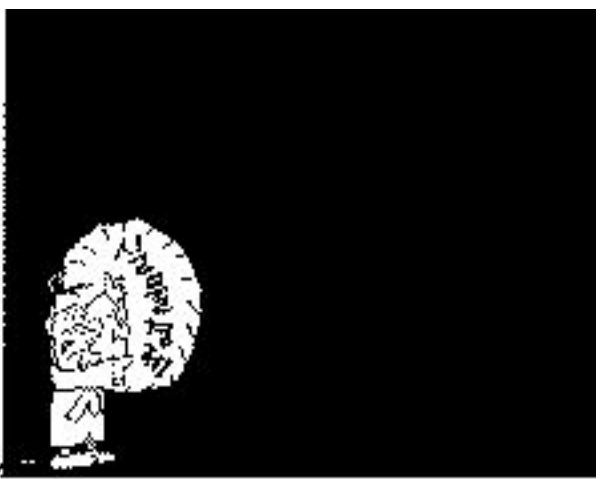
특히 14개 농산물 유통업체와 227억원 상당의 전남 농산물 구매약정을 체결해 기업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이마트, 홈플러스 등 지역내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대대적인 판촉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최근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도내 발주 대형공사 때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이는 방안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빛의만정

- 김중두



답답하다, 앞이 안보인다

전남도, 코리아 F1 국제포럼

24일 서울서 'F1과 국가산업 발전방향' 주제

오는 2010년 전남에서 열리는 F1(포뮬러)국제 자동차대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1회 코리아 F1 국제포럼'이 오는 24일 서울 세라튼워커히호텔 비스타홀에서 개최된다.

'코리아F1과 국가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F1 성공의 조건과 사회적 지원방안, F1과 자동차산업 발전, F1과 관광산업 발전, F1과 광고홍보시장이라는 소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기조발표는 세계F1조직위원회의 공식 컨설팅그룹인 KHP컨설팅의 커머셜디렉터 크리스 웰치가 맡게 되며, 김필수 대림대 교수가 'F1대회 개최 성공의 조건'을, 그리고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가 '자동차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다. 또 안톤 톨츠 조산대 교수는 '한국에서의 F1프로젝트'를, 임상용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사무국장은 'F1과 관광산업의 연관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전남에서 개최되는 F1자동차대회의 타당성을 널리 알리고, F1특별법 제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포럼 공동선언문'이 발표된다.

이번 포럼은 김영록 국회의원이 대회장을 맡게 되며, 박지원, 박주선, 강은태, 정희화, 임두성, 정양석 국회의원을 비롯 한국자동차공학회와 이벤트학회 등 학계와 기업계에서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제 1 차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사회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